

# 개도국에 1천200만 달러 규모 지원한다

글 | 최광학 \_ 과학기술부 동북아기술협력과장

세계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루었으며, 국가간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고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발전이 늦은 개도국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인구의 20%에 달하는 12억 명이 빈곤층에 속하고 있어 지구촌의 빈곤 퇴치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UN은 이러한 세계의 직면과제인 개도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 2001년에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를 설정하고, 2015년까지 빈곤 수준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목표하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 우리 나라도 'MDGs'에 1천200만 달러 규모로 참여

MDG에서 제시하는 분야는 빈곤퇴치, 초등교육의 보편화, 양성 평등, 유아사망률 감소, 산모건강증진, HIV·AIDS 등 질병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존, 개발을 위한 전세계적 파트너십 구축 등 8개로 국제안보 및 안정유지에 필수적인 분야이다. 특히 개도국의 빈곤이 국제적인 테러나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MDG 선언은 향후 잠재적인 불안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제적인 안보나 질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나라는 2005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 ODA 수준을 현재 GNI 대비 0.06%에서 2009년까지 0.12%,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하기로 공표한 바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개도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부가 수행하고 있는 한·UNDP 국가사업은 이러한 개도국 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 목표

로 총 1천200만 달러를 설정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은 UN의 직속기구로서 개도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돕기 위해 1965년에 설립되었으며, 160여 개국 UNDP 현지 사무소를 통해 MDG 달성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과학기술분야 84개 사업 등 총 234개 사업 추진

한·UNDP 국가사업은 우리 나라가 UNDP 수혜국으로서 지원 받은 사업과 우리 나라가 공여국으로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63년부터 2000년까지 40여 년 동안 한·UNDP 국가사업은 UNDP의 지원을 받아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회간접자본, 과학기술 및 산업, 사회복지, 환경, 여성지위 향상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의 전문 기술 인력을 초청하거나 우리의 정책입안자 또는 전문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으며, 이 기간 중 우리 나라가 지원받은 규모는 7천885만 달러이다.

UNDP는 우리 나라에서 1963년부터 1972년까지는 주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사업을 집행하다가 1972년부터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계획 5개년 주기에 맞추어 5년 주기로 하는 5개년 사업계획을 추진하였다. 제1차 5개년사업은 1972년에 시작되었고, 마지막 5개년 사업인 제5차 사업은 1996년에 완료되었다. 그리고 1997년부터 지금까지 4년 단위로 제3차의 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963년부터 2000년까지 UNDP가 약 7천885만 달러를 지원하고 정부나 국내의 관련기관에서 1천470만 달러를 분담하여 총 9천355만 달러에 해당하는 국가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정부와 UNDP는 1970년대에는 농업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그리고 1980년대에는 산업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사회

국가계획	지원 규모			중점 지원 분야
	UNDP	우리나라	계	
국가계획제도 도입이전	1,697	-	1,697	• 농림수산부문, 전문가 초청자문 및 훈련생 파견
제1차(72~76)	1,447	-	1,447	• 주곡자급 및 농어민 소득증대
제2차(77~81)	1,494	-	1,494	• 중화학공업육성 및 기술인력양성
제3차(82~86)	1,382	-	1,382	• 산업기술개발촉진 및 에너지기술지원
제4차(87~91)	1,285	54	1,339	• 전략적 산업기술개발 및 기초과학육성 • 중소기업 전산화 및 핵심기술 개발지원
제5차(92~96)	492	900	1,392	• 산업구조 재조정 및 사회개발 • 개도국 기술이전 및 환경관리 • 두만강지역 개발
후속사업(97~04)	88	516	604	• 과학기술·환경보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빈곤타파
계	7,885	1,470	9,355	

복지 분야의 협력사업을 집중 지원하였다. 더불어 정부는 경제개발의 핵심이 되는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사업을 사업주기에 관계없이 항상 비중 있게 다루어 왔다. 지금까지 추진된 234개의 국가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과학기술분야 84개, 산업분야 35개, 농수산업분야 32개, 사회분야 34개, 환경 분야 31개 그리고 경제 분야 18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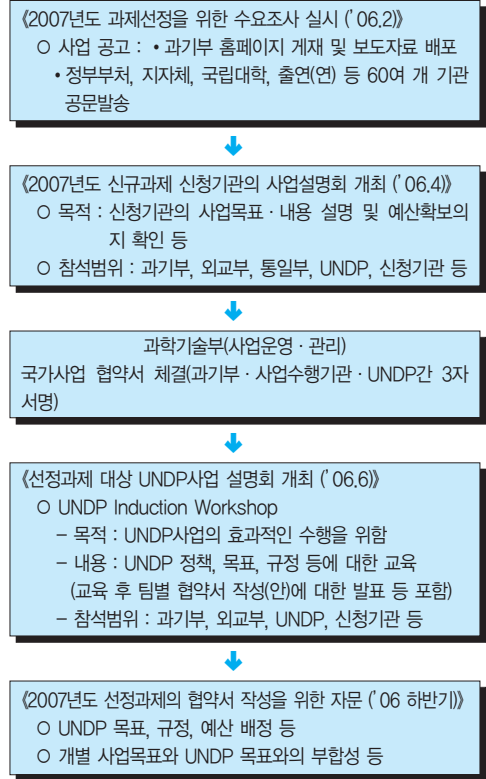
또한 상기 국가사업과 별도로 정부는 주변국가와의 사회경제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UNDP 지역간 협력사업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왔다. 기술이전, 무역 및 투자, 보건향상, 정보통신, 친환경농업, 빈곤완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에서 우리나라의 관련 인력이 각종 회의 및 훈련과정에 참여하였다.

### 2000년부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위상 전환

경제발전에 힘입어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UNDP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위치를 바꿔 개도국 지원을 위해 한·UNDP 국가사업을 시작하였고, 특히 2005~2008년은 우리나라가 순수 공여국으로 전환하여 처음 시행하는 사업기간으로 이 기간에 총 1천 200만 달러의 사업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에 시작된 과제는 말레이시아와 팜산업 부산물로부터 고부가가치 생물소재 생산을 위한 생물전환 기술개발, 서사모아의 연안지질조사 지원, 아·태 치료방사선 품질보증 네트워크 구축지원, 동남아시아지역 문화관광 정책수립 지원, 몽골 건강증진지원 등이 있고 전체 사업규모는 약 300만 달러에 이른다.

2006년 시행 예정 과제는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쓰나미 피해 복구 지원,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활지원, 아시아 빈곤국가 농업기술 경영자 훈련 지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분석기술전수 등이 있고 사업규모는 약 37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은 한·UNDP 국가사업 신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총 4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2006년 2월에 실시되는 수요조사 분야는 MGD 목표에 부합하는 개도국지원 사업이다.

### 한국·UNDP 협력사업 더욱 확대·강화해야

UN의 MDG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천년 출발과 함께 이미 정치적인 힘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OECD 회원국으로 하여금 GNI 대비 ODA규모를 0.7%로 합의한 것은 재정적인 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MDG 선언은 계속 감소되었던 ODA규모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모든 국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이제부터는 방향전환을 하여 국제협력에서 MDG 달성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개도국들은 우리의 경제 및 사회 개발경험 전수를 희망하고 있고, 우리는 기술협력을 통하여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해 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빈곤감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ODA 전략을 지원하는 한 방안으로서 UNDP와 국내 전문기관을 활용, 개도국 인력의 기술훈련을 지원하고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정보 및 자문 제공을 할 수 있는 한·UNDP 국가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야 할 것이다. ㉔